

제주도 '신구간(新舊間)' 풍속에 대한 기후 환경적 이해*

윤용택**

<차례>

- I. 들어가는 말
- II. 유사풍속과의 비교
- III. 제주도의 기후 환경적 특성
- IV. 신구간의 기후적 특성
- V. 맺음말

[국문요약]

제주도의 민간에는 '신구간(新舊間)', 즉 '대한 후 5일부터 입춘 전 3일 사이에' 집수리, 변소개축, 이사, 이장(移葬) 등을 하는 풍속이 있다. 신구간 풍속의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지만, 대체로 제주도의 민속학자들은 신구간 풍속의 유래를 "대한 후 5일부터 입춘 전 2일 사이는 신세관(新歲官)과 구세관(舊歲官)이 교승하는 때이므로, ... 집을 짓고 장사할 지남도 살리함이 없다."는 '세관교승(歲官交承)'에서 찾는다.

그러나 세관교승은 조선 후기에 일반백성들이 널리 애용하던 『친기대요』, 『산림경제』 등에 실려 있는 것으로 보아, 본토에서도 '세관교승'의

* 본 논문은 2005년도 제주대학교의 학습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제주대학교 철학과 교수, 탐라문화연구소 연구위원

내용은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지방에서는 세관교승과 관련된 풍습을 찾기가 어렵다. 따라서 여기서는 신구간 풍속의 연원을 '세관교승'의 유입과 더불어 열악한 자연환경과 기후 등에서 찾아보았다.

옛 제주인들은 폭우, 태풍, 가뭄 등의 자연재해가 잇따르는 열악한 자연환경과 여러 질병을 유발하는 고온다습한 기후 때문에 무속 신앙에 의지해서 살아왔다. 그들은 언제나 신들에게 구속을 받고 뒤탈이 두려워 마음 놓고 일을 못하였다. 그런 제주인들에게 세관교승의 이야기는 하나의 복음(福音)으로 들렸을 것이다. 하지만 신구간 풍속이 오늘날까지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나름대로 합리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세관교승 내용이 전국적으로 알려졌는데도 본토에는 신구간이라는 개념조차 없는 이유는 본토에서는 대한 후 5일에서 입춘 전 2일 사이가 엄동설한이어서 묵은 철을 정리하고 새 철을 준비하는 기간으로는 부적절하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에 제주도는 입춘에 일평균기온이 5℃ 이상이 되어 자연계절의 봄이 시작되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곳이다. 따라서 제주도에서는 '세관교승'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입춘 이전에 막바지 새봄맞이 준비를 하는 신구간 풍속으로 정착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신구간에 일평균기온이 4.7℃로 일년 중 가장 추워서 세균의 활동이 위축되므로 질병 감염 위험이 가장 적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는 뒤탈이 있던 일들도 신구간에 하면 아무렇지도 않았다. 뿐만 아니라 신구간은 식물의 성장이 정지되는 제주도의 유일한 농한기이다. 제주인들은 척박한 자연환경을 이겨내기 위해서 식물성장이 가능한 시기에는 농사에 전념해야 했고, 농사 외적인 일은 농한기를 이용해야 했다. 그런 점에서 신구간은 변소개축, 집수리, 이사, 이장 등을 하기에 안성맞춤의 시기였다.

이처럼 제주도의 신구간 풍속은 옛 제주인들의 무속적 성향, 세관교승

의 내용, 그리고 기후 환경적으로 그것을 정당화시켜주는 실증적 효과 등이 어우러져 더욱 강화된 속신이 되었던 것이다.

1. 들어가는 말

제주도의 민간에서는 '신구간(新舊間)', 즉 '대한(大寒) 후 5일부터 입춘(立春) 전 3일 사이에' 집수리, 변소개축, 이사, 이장(移葬) 등을 하는 풍속이 있다. 제주인들은 "신구간에 옥황상제(玉皇上帝)의 명을 받아 지상(地上)의 일을 관장하던 신(舊官)들이 하늘로 올라가고 새로 임명 받은 신(新官)이 내리오므로, 이 기간에는 지상에 신이 없기 때문에 신이 두려워서 못했던 일들을 해도 아무런 탈이 없다."는 속신(俗信)을 믿으면서 살아왔다.¹⁾

이러한 신구간 풍속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첨단과학기술시대인 오늘날까지도 신구간 풍속은 이어지고 있고, 특히 산업화로 인구가동이 많아져 "신구간=이사철"로 굳어지게 되면서 신구간 풍속으로 인한 폐단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신구간에 많은 가구가 일시에 이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주택이 부족하던 시절에는 임대료 폭등을 가져왔고, 경제성장 시기에는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하기가 쉽지 않아서, 행정당국에서 신구간 풍속을 없애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였다.²⁾ 그러나 신구간 풍속은 지

1) 진성기, 「新舊間과 民俗信仰」, 『국어국문학』 34·35 합병호(국어국문학회, 1967), p.211, 진성기, 『제주도민속』(제주민속연구소, 1997), pp.383-388 및 『제주도지』 하(제주도, 1982), pp.926-928 참조

2) 제주도 당국에서는 폐지해야 할 낡은 악습으로 1960년대에는 ① 신구간, ② 점술 및 무당 등 미신, ③ 경작지내 매장, ④ 돛봉시(제래식 변소), ⑤ 허례허식, ⑥ 농어촌의

금까지도 지속되어 오늘날에는 전화, 유선방송, 인터넷, 가스 등을 설비 하는 업체에선 신구간에 비상근무를 해야 하는 실정이다.

신구간 풍속의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설들이 있지만,³⁾ 대체로 제주도 의 민속학자들은 “대한 후 5일부터 입춘 전 2일 사이가 신세관(新歲官) 과 구세관(舊歲官)이 교승하는 때(大寒後五日立春前二日 乃新舊歲官 交命之際)이므로, … 집을 짓고 장사를 지내도 불리함이 없다.”는 ‘세관 교승(歲官交承)’에서 찾는다. 이러한 ‘세관교승’의 내용은 『천기대요(天機大要)』⁴⁾, 『산림경제(山林經濟)』⁵⁾ 등에 실려 있다.⁶⁾

도박 등을 잡고 이에 대한 계몽운동을 벌였고, 1970년대에는 ① 신구간, ② 미신, ③ 암매장, ④ 허례허식, ⑤ 목야지 화입, ⑥ 무고(誣告) 등을 없애기 위해 계몽 위주에서 처벌 위주로 전환하기도 하였다.

- 3) 신구간 풍속의 유래에 대해서는 고유문화설, 외래문화설, 백낙연 목사(牧使)설, 자연환경설, 탐관오리설 등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논자가 다른 곳에서 다룬 바 있다. 윤용택, 『제주도 신구간 풍속의 유래에 대한 고찰』, 『탐라문화』 28호(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6) 참조.
- 4) 『천기대요』는 역학(易學)과 오행설(五行說)의 원리에 바탕을 뒀서 인간생활의 길흉 화복을 가리는 방법을 기술한 도참서로 조선시대에는 조정에서부터 일반백성에 이르기까지 일용판으로 애용되었다. 『천기대요』는 “명(明)나라 임소주(林糸召周)가 찬술하였고, 인조14년(1636) 성여훈(成汝勳)이 간행하였는데 병자호란으로 방실되어 효종4년(1653)에 시헌력(時憲曆)에 따라 개편되었다. 이 책을 원전으로 하여 음양과 출신인 지백원(池百源)이 영조 13년(1737년)에 증보본(增補本)을 만들었고, 이를 바탕으로 그의 손자 지일빈(池日賓)이 영조39년(1763년)에 신증본(新增本)을 간행되었고, 관상감에서 고종 39년(1902년)에 지송옥(池松旭)의 증보신본(增補新本)을 발간하였다. 그리고 1981년에 대한역법연구소에서 신증본을 원본으로 하여 영인판 『新增參贊秘傳 天機大要』를 대지문화사에서 펴냈고, 김혁제(金赫濟)가 교주(校註)하여 1970년에 『改正增補 天機大要』를 명문당에서 발행하였고 2000년에 그것의 수정판을 발행한 바 있다.
- 5) 『산림경제』는 조선 후기 실학자 유암(流巖) 홍만선(洪萬選: 1643~1715)이 농업과 일상생활에 관한 광범위한 사항을 기술한 농촌생활에 필요한 가정보감(家庭寶鑑)으로 간본(刊本) 없이 필사본으로만 전해 오다가 1766년(영조 42) 유중림(柳重臨)에 의하여 증보되었다. 신승운, 『산림경제 해제』, 민족문화추진회 역, 『국역 산림경제』 I(민족문화문고간행회, 1986), pp.1-15 및 홍이섭, 『홍만선의 산림경제에 대하여』, 『山林經濟』 한국학기본총서제8집 吳漢根 소장본 영인본 (경인문화사, 1973), pp.1-3 참조.

이처럼 신구간이 '세관교승'에서 비롯된 게 사실이라면, 신구간은 통상적으로 세간에 알려진 일주일이 아니라 8일간이 된다. 즉 대한이 1월 20일이고 입춘이 2월 4일인 경우에, 신구간은 1월 25일부터 2월 1일까지가 되는 셈이다.⁷⁾

그러나 제주도의 신구간 풍속이 '세관교승'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세관교승' 내용이 조선 후기에 일반

6) 『신구간(新舊間)』 … 〇대한 후 5일부터 입춘 전 2일은 곧 신세관(新歲官)과 구세관(舊歲官)이 교승하는 때이다. 입춘일을 범하지 말고, 반드시 황도원(黃道元)과 흑도원(黑道元)을 가려서, 먼저 조상의 신주에게 길(吉)한 방향으로 피해서 나가도록 청해야 한다. 이때에는 산운(山運)에도 거리낌이 없어 길흉살에 이르기까지 극복되므로, 임의대로 가택을 짓고 장사를 지내도 불리함이 없다. (大寒後五日立春前二日乃新舊歲官交令之際不犯立春日須擇黃黑道先請祖先神主出避吉方不忌山運被克及諸般吉凶殺起造葬埋任意爲之無不利) 대한역법연구소 편, 原本 影印版 『新增參贊秘傳 天機大要』(대지문화사, 1981), p.131.

『신구간(新舊間)』 … 『세관교승(歲官交承)』 (立春日을 범하지 말고 모름지기 黃道와 黑道를 가려서 사용한다.) 대한 후 5일과 입춘 전 2일은 곧 신세관과 구세관이 교승하는 때이다. 그 사이에 사용할 날짜와 시간을 잘 가리면 山運에 거리낄 게 없고, 모든 吉凶殺에 이르기까지 극복된다. 집을 짓고 장사를 지내는 일을 마음대로 하여도 불리함이 없다. 『신구간(新舊間)』 … 『세관교승(歲官交承)』 (不犯立春日 須擇黃黑道) 大寒後五日立春前二日乃新舊歲官交令之際 其間善擇日時 不忌山運 被克及諸般吉凶殺 起造葬埋 任意爲之 無不利) 『山林經濟』 한국학기본총서 제8집, 오한근 소장본 영인본(경인문화사, 1973), pp.639-640. 『산림경제』의 원본에 가장 가까운 삼목영(三木榮) 소장본에는 '세관교승'조 부분이 없고, 후에 증보된 것으로 보이는 오한근(吳漢根) 소장본과 한독의학박물관(韓獨醫學博物館) 소장본 등에는 있다. 홍만선 저, 민족문화추진회 역, 『국역 산림경제』 I(민족문화문고간행회 편, 1986), pp.11-12, 『국역 산림경제』 II(민족문화문고간행회 편, 1986), pp.199-203. 동일서 영인본 pp.76-77 참조

7) 제주도의 민간에서도 신구간이 "대한 후 5일부터 입춘 전 3일까지"로 알려져 왔기 때문에, 입춘 전 3일째 되는 날을 신구간에 포함시킬 지에 대해서 혼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내 신문에서 신구간과 관련된 보도(1953.1~2005.2)를 분석한 결과, 대체로 1990년대 중반 이전에는 3일째 되는 날을 포함시키지 않아서 신구간을 1주일로 잡았고, 1990년대 중반 이후는 3일째 되는 날을 포함시켜서 8일간으로 잡고 있다. 따라서 현재는 민간에서도 대한이 1월 20일이고 입춘이 2월 4일인 경우 신구간을 1월 25일부터 2월 1일까지 8일간으로 삼고 있다.

백성들이 널리 애용하던 『천기대요』, 『산림경제』 등에 실려 있는 것으로 보아, 본토에서도 '세관교승'의 내용은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본토에도 신구간과 유사한 관습이 있었으리라는 추측도 가능하지만, 현재로서는 제주도와 같이 연쇄적이고 비중이 큰 관습을 다른 지방에서는 찾기 어렵다.⁸⁾

신구간 풍속이 제주도에만 (남아)있는 이유는 제주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유독 무속(巫俗) 신앙이 성하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가능하다. 그리고 제주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무속이 성하다는 것은 여러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⁹⁾ 그러나 무속이 성하다는 이유만으로 제주도에 신구간 풍속이 (남아)있는 이유를 설명하기가 힘들다. 왜냐하면 무속 신앙은 전과학시대의 보편적인 현상이므로 다른 지역에서도 신구간 풍속이 (남아)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신구간 풍속은 무속신앙과 '세관교승' 이외에도, 열악한 자연환경과 기후 등에서 그 연원을 살펴볼 필요도 있다. 옛 제주인들은 수재(水災), 풍재(風災), 한재(旱災) 등의 자연재해가 잇따르는 열악한 자연환경과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하기 쉬운 고온다습한 기후 때문에 무속 신앙에 의지해서 살아왔다. 언제나 신들에게 구속을 받고 뒤탈이 두려워 마음 놓고 일을 못하던 제주인들에게 “대한 후 5일부터 입춘 전 3'

8) 장주근, 『한국의 세시풍속』(형설출판사, 1989), pp.105-107.

9) “제주 풍속에 대해서 산, 숲, 냇물, 인목, 물가, 평지 등 나무나 바위가 있는 곳에 신(神)을 믿음이 높았다. 그리고 매년 신년부터 정월 보름까지 심방(巫覡)이 신독(神籙)을 받들고 나희(儺戲)를 행한다 …”는 기록은 조선 중기(1530년)의 『신증동국여지승람』 <제주목>조에 기록된 다음부터 이원진(李元鎭, 1594-?)의 『탐라지』, 이증(李增, 1628-1686)의 『남시인목』, 이형상(李衡祥, 1633-1733)의 『남환박물』 등에도 기록되고 있다. 고찬화 편저, 『제주의 전설과 민요』(디딤돌, 2004), p.27, p.36, p.40 참조 그리고 오늘날 제주지역의 무속신앙의 실태에 대해서는 조성윤, 이상철, 허순애 공저, 『제주지역 민간신앙의 구조와 변용』(백산서당, 2003)에 잘 정리되어 있다.

일까지는 신구세관(新舊歲官)의 교체기여서 지상에 신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도 해가 없다.”는 ‘세관교승’의 이야기는 하나의 복음으로 들렸을 것이다. 그러나 신구간 풍속이 과학기술의 시대에까지 지속된다는 것은 합리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논자는 여기서 제주도의 신구간 풍속의 바탕에는 궁극적으로는 본토와는 다른 제주도의 기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가설을 제기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2장에서 신구간 풍속과 그와 유사한 풍속의 차이점을 비교해보고, 3장에서는 제주도의 기후 환경적 특징을 살펴보고, 4장에서는 신구간 풍속이 제주도의 독특한 기후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밝혀보고자 한다.

II. 유사풍속과의 비교

자연의 순리에 따라 농사를 짓던 시절에 씨 뿌리고, 김매고, 수확하는 시기를 알기 위해서는 사계절(사철)의 순환을 읽어내야 했다. 그리고 농경사회에서의 여러 가지 세시풍속들은 곧 살아 있는 농사력(農事曆)과 생활력(生活曆)이었다. 봄은 한 해의 시작이고, 시작과 부환의 의미를 지니기에, 농경사회에서 새 철(봄)을 알고 준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다. 특히 묵은 해에서 새해로, 묵은 철(겨울)에서 새 철(봄)로 넘어가는 순간(또는 기간)에는 마음을 가다듬고 묵은 것을 정리하고 새 출발을 준비해야 했다.

묵은 해(묵은 철)에서 새해(새 철)로 바뀌는 시기에는 어느 지역이나 갖가지 세시풍속이 있었고, 제주도의 신구간 풍속처럼 신(神)들이 지상에서 있었던 일들을 최고신인 옥황상제에게 고하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

간다는 속신에 따른 세시풍속들도 있었다. 따라서 여기서는 신구간 풍속의 특징을 잘 드러내기 위해 신구간과 유사한 풍속들을 비교해보기로 한다.

1. 제석수세(경신수야)

한 해의 마지막 날인 12월 30일을 '섣달그믐'이라 하며, 한자로는 '제석(除夕)', '세제(歲除)', '세진(歲盡)'이라 한다. 이 날에는 '묵은세배'라 하여 한 해 동안의 보살핌과 안녕을 감사하고 서로 축하하며, 세찬(歲饌)으로 쓰일 음식을 장만하고 서로 나눈다. 그리고 특히 이 날 밤에는 불을 밝히고 잠을 자지 않는 '수세(守歲)' 풍속이 있었다. '수세'는 지나가는 한 해를 지킨다는 뜻으로, 어린이들이 졸린다고 조르면 "눈썹이 하얗게 쏜다."하여 가능하면 재우지 않았다. 이러한 제석수세(除夕守歲) 풍속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행해졌는데,¹⁰⁾ 이는 도교에서 경신일(庚申日)에 밤을 새워 지키는 경신수야(庚申守夜)에서 비롯되었다(守歲 卽 守庚申之遺俗也)¹¹⁾고 한다.

경신수야는 경신일(庚申日)에 잠을 자지 않고 밤을 지새는 도교(道敎)의 장생법(長生法)의 하나이다. 민간 도교에서는 60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경신일이 되면 사람 몸에 기생하던 삼시신(三尸神/三尸蟲)이 사람이 잠든 사이에 몸을 빠져 나와서 옥황상제께 그 동안의 죄과를 고해 바쳐 수명을 단축시킨다고 한다. 따라서 민간 도교에서는 동지가 지나서 경신일에 밤을 새워 지키는데, 진짜 경신수야는 섣달 경신일에 해야 된다고 한다. 그리고 섣달 경신일은 매년 있는 게 아니라, 6년에 한번 꼴로

10) 장정룡, 『한중 세시풍속 및 가요연구』(집문당, 1988), pp.228-230 참조

11) 홍석모, 『동국세시기』 12월 '제석'조, 김성원 편, 『한국의 세시풍속』(명문당, 1994), p.271.

있게 되는데 경신수야를 7번 하면 삼시신이 아주 없어진다고 한다.¹²⁾ 그래서 사람들은 선달 경신일에는 삼시신이 하늘로 올라가 상제에게 고하지 못하도록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는다. 이 날 밤이면 징을 치고 큰 소리가 나는 악기를 치며 불경을 외고, 한편으로는 자지 않고 밤을 새우기가 어려우니까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놀이를 한다.

이러한 경신수야의 풍속은 한대(漢代)에도 있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사』에 “고려 원종 6년(1265)에 태자가 밤새워 연회를 베풀면서 자지 않았는데 이것이 경신일을 지키는 것으로, 태자도 당시의 풍속을 따랐다.”¹³⁾는 기록이 있으며, 궁중행사로 계속되다가 조선 영조 때 폐지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습속이 민간에 전해져 제석수세의 풍속으로 남게 되었다.¹⁴⁾

제석수세와 경신수야 풍속은 신구간 풍속과 마찬가지로 “인간은 최고신인 옥황상제의 지배를 받으며, 지상의 신들은 옥황상제에게 지상의 일을 보고하러 하늘로 올라간다.”는 속신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묵은 해와 새해 또는 묵은 철과 새 철 사이에서 행해지는 세시풍속이라는 점에서 일치한다. 그러나 두 풍속은 그 기능과 의미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

첫째는 시간상으로 신구간은 일주일 이상 이어지는데, 제석(또는 선달 경신일)은 단 하루에 불과하다. 따라서 신구간에 변소개축, 집수리, 이사, 이장 등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제석수세(경신수야)는 단 하룻밤에 불과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요하는 일은 할 수가 없다.

둘째는 선달그믐은 계절상으로도 묵은 해(묵은 철)를 마무리하고 새

12) 임동권, 『한국세시풍속연구』(집문당, 1989), pp.214-215.

13) 국립민속박물관 편, 『조선대세시기』(민속원, 2003), p.134 각주 152.

14) 『서울민속내관』 풍수·관습·종교 편, (서울특별시, 1986), p.733.

해(새 철)를 준비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왜냐하면 제석수세를 마치고 설날이 되면 새해가 시작되지만 계절상으로는 여전히 겨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날그믐은 관념적으로 묵은 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기간이고, 설날 역시 역(曆)으로는 새해의 시작이지만, 절기상으로는 들쭉날쭉하여 입춘보다 이르거나 늦는 경우도 많아서 실질적으로 새로운 계절이 시작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반면에 제주도에서는 신구간이 지나서 입춘이 되면 새 철이 듦으로(자연계절상으로도 봄이 시작되기 때문에), 신구간은 실질적으로 묵은 철을 마무리하고 새 철을 준비하기에 적절한 시기이다.

셋째는 경신수야 풍속은 인간은 언제나 신으로부터 구속을 받는다는 믿음에서 비롯되었지만, 신구간 풍속은 평상시에는 신의 구속을 받지만 신구간에는 신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되었다. 다시 말해서 경신수야 풍속이 단순히 삼시신(三尸神)이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는 데서 비롯되었다면, 신구간 풍속은 지상의 신들이 없는 사이에 꺼리던 일들을 적극적으로 하려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넷째는 제석수세는 묵은 것을 마무리하고 새 출발하기 위해 마음의 준비를 하는 시간으로, 불을 밝혀 노는 축제의 시간이다. 반면에 신구간은 묵은 것을 정리하고 새 출발을 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기간으로, 바쁘게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하는 노동의 시간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조왕상천일

중국에는 일찍부터 조왕신(竈王神)에게 제사를 드리는 풍속이 있었다.¹⁵⁾ 조왕신은 옥황상제의 부속신으로 '조군(竈君/灶君)', '조왕야(灶王

爺) 등으로 불리며 중국에서는 보편적으로 신앙되고, 우리나라에서도 가신(家神)이나 무속의 신으로 신앙되고 있다.

중국의 민간에서는 조왕신이 가족들의 선악을 기록해 두었다가 매월 30일에 한데 모아 천제께 아뢰며, 매년 선달 24일(8일 또는 23일)에는 상천(上天)하여¹⁶⁾ 옥황상제에게 한 집안의 선악을 보고하고 다시 정초(正月初) 4일에 집안의 평안과 복록(福祿)을 관장하기 위해 내려온다고 믿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가정에서는 조왕이 상천하는 선달 24일과 하강하는 정월 초 4일에 조제(竈祭)를 지낸다.¹⁷⁾

따라서 제주도의 신구간 풍속은 이러한 중국 민간 풍속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해볼 수도 있다.¹⁸⁾ 그러나 앞에서 경신수야 풍속과의 비교에서도 보았듯이, 제주도의 '신구간'과 '조왕상천일(竈王上天日)' 풍속은 지상을 관장하는 신이 조회(朝會)하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고 간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그 기능과 의미는 크게 다르다.

첫째 조왕상천일 풍속은 경신수야 풍속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언제나 신으로부터 구속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믿음에서 비롯되었지만, 신구간 풍속은 직어도 신구간에는 신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속신에

15) 중국의 세시풍속을 기록한 『酌中志略』, 『荆楚歲時記』, 『東京夢華錄』, 『夢梁錄』, 『宛署雜記』, 『帝京景物略』, 『熙朝樂事』, 『清嘉錄』, 『燕京歲時記』 등에 조왕신을 기리는 풍속이 기재되어 있다. 장정룡, 『韓·中 歲時風俗 및 歌謠研究』(집문당, 1988), p.107 및 p.226 참조

16) 조왕상천일을 12월 8일 또는 12월 23일이라 하는 경우도 있다. 『서울민속대관』 풍속·관습·종교 편, (서울특별시, 1996), p.731 및 장정룡의 위의 책, p.226 참조

17) 『帝京景物略』 卷2, “二十四日以糖劑餅, 黍糕, 棗栗, 胡桃, 炒豆祀竈君, 以糟草秣竈君馬, 謂竈君翌日朝天去, 白家問一歲事, 祝曰好多說, 不好少說.”, 陳瑞隆, 『臺灣民間年節習俗』(臺北: 裕文堂書局, 1982), p.44. “初四, 接神, 俗以臘月二十四日灶君和諸神上天奏報, 初四日回到人間, 家家以牲禮, 果品供奉, 燒金馬, 放爆竹迎新, 意在祈求眾神下降賜吉祥.” 장정룡의 위의 책, p.106, p.226에서 재인용.

18) 장정룡, 위의 책, p.106, 장수근, 앞의 책, pp.106-107.

서 비롯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인들은 중국인들과는 달리 신구간에는 평소에 신이 두려워서 꺼리던 일들을 할 수 있는 자유로운 기간으로 보았다.

둘째 중국인들은 조왕상천일(선달 23 또는 24일)에는 조왕신이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 옥황상제에게 보고할 때 좋은 이야기는 많이 하고 궂은 이야기는 적게 해달라고 빌고, 조왕하강일(정월 초 4일)에는 좋은 일이 많이 있게 해달라고 비는 제사를 지낸다. 즉 중국인들에게 있어서 조왕이 상천하거나 하강하는 날은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날이다. 반면에 제주인들에게 있어서 신구간은 평소에 신이 두려워 못했던 일을 할 수 있는 자유의 시간이요, 노동의 시간이다. 중국인들은 조왕상천일과 하강일에 신에게 제사를 지내느라 더욱 신에게 구속된데 반해, 제주인들은 신구간에 신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자신들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이다.

3. 투수일(투시)

영남 일부 지방(밀양, 통영)에는 제주도의 신구간 풍속과 유사한 투수일(儉修日) 내지는 투시(儉時) 풍속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¹⁹⁾ 즉 “대한 후 10일째, 입춘 이전 5일째 되는 날은 귀신들이 하늘에 모임 하러 가서 세상에는 귀신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집, 특히 변소나 헛간 등 잡신이 탈을 부려서 평소에는 날을 받아서 해도 뒤탈이 잘 나는 곳도 이때에 고치면 뒤탈이 없다. 이때를 대투수(大儉修) 또는 투시(儉時)라

19) 경상남도의 내륙지방인 밀양군 산외면 다원리와 도서지방인 통영군 사랑면 금평리 진천마을에는 투수일 풍속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경상남도편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2), p.701, p.759 및 『서울민속대관』 풍수·관습·종교 편, (서울특별시, 1996), p.731 참조.

한다.”는 것이다.²⁰⁾

이러한 풍속은 전적으로 “투수일(투시)은 대한 후 10일, 입춘 전 5일로 단 하루인데, 그 하루가 상길(上吉)이 되고, 그 전 1일과 후 1일이 차길(次吉)이 된다. 이 날은 구신(舊神)은 막 떠나고 신신(新神)은 아직 오지 않은 때이다. 이것은 곧 1년 중의 공망일(空亡)인 까닭에 연월일시를 세지 않으며, 상극(相剋)이라 하더라도 모든 일에 거리낄 것이 없다. 다만 길성(吉星)이 와서 도와주지 않으니, 5일 내에 일을 마치는 게 좋다.”²¹⁾는 <투수일>조 또는 <투시>조에서 기인한다.

‘투수일’ 내지는 ‘투시’는 대한 후 10일, 입춘 전 5일로 (대한을 1월 20일, 입춘을 2월 4일이라 할 때) 1월 30일 단 하루이다. 이때는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전국적으로 기상학적으로 혹한기라서 일평균기온이 영하권

20) 이에 대해서 “경남 도서지대인 사랑도(蛇梁島)에서는 대한 후 5일에서 입춘 전 3일 까지 7, 8일 간을 ‘투수일’이라 했다. 이 기간 동안은 잡신들이 다 집을 비워서 방을 하나 손질해도 동토가 안 나고 괜찮다는 말을 했다. 중국 도교에서 이른바 조왕(竈王)의 옥황상제 앞의 승천(昇天) 회의(會議)기간으로 여기는 풍속으로 제주도에서는 이 기간을 신구간이라 부른다. … 그러니까 사랑도의 경우 제주도 풍속과 비슷한 데가 있다 하겠다. 그러나 그것은 한두 고로(古老)나 어렵듯이 기억하고 있던 일이고 일반적으로 지금껏 생동하고 있는 민속은 못 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주)누리미디어 한국학 데이터베이스(<http://www.krpia.co.kr>) 『한국민속대관』, 본문 p.1522. 그러나 현재 사랑도(사랑면 금평리 진천마을)에 대대로 거주하는 차철호(1934년생)씨에 따르면 “예전에 있었던 투수일 풍속은 지금은 사라졌으며, 투수일은 손없는 날로 대한 후 10일, 입춘 전 5일로 단 하루였고, 뒤탈이 두려워 못하던 일들을 투수일에만 했던 것은 아니고 한식일에도 했다.”고 한다.(전화 인터뷰 2006. 3. 3)

21) 大寒後十日 立春前五日 只一日爲上 前一日後一日爲次 右日 舊鬼將謝 新神未進 此乃一年之空亡 故不計年月日時 受剋而 百事無忌 但無吉星之來助 五日內畢功爲可 대한역법연구소 편, 原本 景須版 『新增參贊秘傳 天機大要』, 대지문화사, 1981, p.131. 偷時 (舊鬼將謝 新鬼未進 此乃一年之空亡也 殺神專不用事 百事無忌而 但無吉星之來助) 大寒後十日 立春前五日 只一日爲上 前一日後一日爲次 不計年月日時 受剋而爲之 無害也 五日內畢功爲可 홍만선, 『山林經濟』 한국학기본총서 제8집, 오한권 소장본 영인본 (경인문화사, 1973), pp.639-640. 및 『국역 산림경제』 II, 三木榮 소장본 영인본 (민족문화추진회, 1983), p.76 참조

을 맡들며,²²⁾ 투수일은 신구간의 여러 날 가운데 하루에 속한다. 따라서 투수일과 신구간은 시기상으로 일치한다는 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중요한 차이점도 있다.

첫째는 시간상으로 투수일은 단 하루이지만 신구간은 일주일 이상 이어진다. 따라서 투수일(투시) 풍속에 따르면, 투수일은 단 하루뿐이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기가 힘들다. 뿐만 아니라 변소개축, 집수리, 이사, 이장 등을 하는 경우에, 날씨에 상관없이 이 날 하루에 일을 해야 한다. 반면에 신구간은 일주일 이상으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날씨를 보아가면서 일을 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묵은 철을 정리하고 새 철을 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다.

둘째는 투수일은 혹한기여서 질병의 감염은 없고, 평소에 꺼리던 일들을 해도 뒤탈이 없지만, 지나치게 추워서 일을 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영남지방에서 『친기대요』와 『산림경제』 등의 영향을 받아 ‘투수일에는 지상에 신이 없어서 평소에 꺼리던 일을 해도 뒤탈이 없다.’는 속신이 있어서 투수일(투시) 풍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오늘날까지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투수일(투시) 풍속이 전국적으로 확장되지 못했던 이유도 이와 비슷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제주도의 신구간도 일 년 중 가장 추운 기간이어서 일평균기온 4.7℃이고 5% 내외의 찬바람까지 부는 것을 감안하면 체감온도가 1~2℃로 내려간다. 그러나 활동하기 어려울 정도의 추위는 아니면서, 제주도의 고온다습한 기후에 비취볼 때 이 때가 기후 환경적으로 질병 위험이 가장 적고 농한기라는 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신구간 풍속은 오랫동안 이어질 수 있었다.

22) 『한국기후편람』(중앙기상대, 1985), pp.371-374 참조.

4. 윤달

음력 1월의 크기는 29.53059일이므로, 1개의 태음월로 만들어진 순태음력의 1년 길이는 354.3671일이다. 이는 1태양년의 길이 365.2422일보다 약 11일(10.8751일)이 짧다. 따라서 3년이 지나면 음력날짜는 태양의 움직임과 약 한 달 차이가 나게 되어 보정을 하지 않을 경우 점점 계절과 차이가 많이 나서, 17년 후에는 5월·6월이 겨울이 되고, 11월·12월에 여름이 될 것이다. 따라서 태음태양력(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음력)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없애고, 날자와 계절을 맞추기 위해 19년에 7번 윤달을 도입하여 1년을 13달로 한다.²³⁾ 다시 말해서 윤달은 음력이 계절의 흐름과 차이가 나는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민간에서는 윤달을 정상적인 달이 아니라는 생각에서 '공달(空月)', '덤달', '여별달', '썩은 달'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윤달은 지상의 모든 신들이 월중행사(月中行事)에 따른 일정표에서 제외된 텅 빈 달이라는 관념에서, 평상시의 신의 노여움을 살까 두려워하고 거려하던 일들을 해도 괜찮은 것으로 속신(俗信)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윤달에

23) 19태양년에 7개월의 윤달을 두는 이유는 19태양년 = 365.2422일×19 = 6939.6018일이고, 235삭망월 = 29.53059일×235 = 6939.6886일로 같은 일수가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300)일을 동양에서는 장(章)이라고 하여 B.C. (300)년경인 중국의 춘추시대에 발견되었고, 서양에서는 메톤주기라고 하여 B.C. 433년에 그리스의 메톤에 의하여 발견되었다. 윤달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24절기를 기준으로 한다. 24절기는 각 사이는 대체로 15일이므로, 아래의 표에서 보듯이 내새로 한 달에 한 번의 절기(節期)와 한 번의 중기(中期)가 든다. 그러나 어떤 달에는 절기만 들고 중기가 들지 않는 달이 있는데, 그 달을 윤달로 삼고 달 이름은 신년의 이름을 따른다. 한국 천문대 편, 『만세력』(명문당, 2004), pp.12-16 참조

월	정월	이월	삼월	사월	오월	유월	칠월	팔월	구월	시월	동짓달	섣달
절기	입춘	경칩	청명	입하	망종	소서	입추	백로	한로	입동	대설	소한
중기	우수	춘분	곡우	소만	하지	대서	처서	추분	상강	소설	동지	대한

는 부정이나 액이 없기 때문에 집수리, 이사, 이장(移葬) 등을 했다. 그리고 윤달에는 변소를 고쳐도 축간신이 눈감아 주기 때문에 동티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변소를 고쳐야 할 집에서는 따로 날을 받지 않고도 이를 고치기도 하였다.²⁴⁾

이처럼 윤달에 있어서의 '공달'의 관념은 평소에 꺼리던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점에서 제주도의 '신구간'의 속신과 비슷하지만, 둘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첫째는 윤달은 매년 있는 게 아니고, 그 시기도 윤 2월에서부터 윤 10월까지 일정하지가 않다.²⁵⁾ 다시 말해서 윤달은 봄에 있을 수도 있고, 여름에 있을 수도 있다. 반면에 신구간은 매년 대한 후 5일과 입춘 전 2일로 고정되어 있다.

둘째는 윤달과 신구간은 기능상의 차이가 있다. 즉 윤달은 음력과 계절의 차이가 벌어지는 것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면, 신구간은 묵은 계절(철)과 새로운 계절(철)이 교체되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셋째는 윤달과 신구간은 평소에 꺼리던 일을 하는 시기라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그러나 윤달의 경우는 평소에 꺼리던 일을 해도 해가 없다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 반면에 신구간은 그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 즉 제주도의 신구간은 가장 추운 기간이어서 세균활동이 위축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도 뒤탈이 없다

24) 진성기, 『제주도 금기어 연구사전』(제주민속연구소, 1992), pp.51-55 및 『한국민속대관』 권4 세시풍속·전승놀이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1995), pp.280-282, 『세시풍속』 경상남도편 (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p.147 참조.

25) 20세기(1901-2000) 동안에 있었던 윤달의 빈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천문대 편, 『만세력』(명문당, 2004) 참조.

윤달	정월	이월	삼월	사월	오월	유월	칠월	팔월	구월	시월	동짓달	섣달
빈도	0	4	4	6	8	6	4	4	0	1	0	0

는 것은 것이다.

Ⅲ. 제주도의 기후 환경적 특성

제주도는 한반도의 최남단에 위치하며 아열대기후대에서 온대기후대로의 전이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연중 온난 습윤한 해양성이 강하여 일교차가 본토에 비해 작고, 지표 및 지중 온도가 높다. 한편, 제주도는 최한월인 1월에는 서울보다 8~10℃ 따뜻하다. 지난 80년간(1904~1984) 자료에서 본다면 일평균기온이 5℃ 미만인 경우가 1년 동안에 23일이고, 지난 30년간(1971~2000)의 자료에서 본다면 10일 내외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일 최저기온이 0℃이하로 내려가는 경우는 없고, 통상적인 겨울에 해당하는 12월, 1월, 2월에도 일평균기온이 대부분 5℃를 넘어 기상계절(자연계절)로서의 겨울은 없는 셈이다.²⁶⁾

이러한 제주도의 기후는 조선시대에 중앙에서 파견된 목사나 귀양왔던 선비들의 기록에도 여실히 나타난다. 병자호란 당시 청나라에 굴복하기를 끝내 반대했던 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 1570~1652)이 32세(1601)에 안무어사(安撫御使)로 파견되어 기록한 기행문인 『남사록(南槎錄)』에 보면,

한 지역민(土人)에게 물으니 “봄과 여름 낮에 안개가 끼면 섬이 온통 시

26) 기상계절은 일정한 한계값이 되는 날과 서리, 얼음, 눈 등 특수한 기상현상이 나타나 는 날을 조사하여 얻어진 결과를 말한다. 계절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은 일평균기온 20℃ 이상, 일최고기온 25℃ 이상인 날을 여름이라 하고, 일평균기온 5℃이하, 일최저기온 0℃이하인 날을 겨울이라 한다. 김연옥, 『개정 기후학개론』(정익사, 1999), p.73, 『한국기후편람』(중앙기상대, 1985), p.45, 『한국기후표(1971~2000)』(기상청, 2001) 참조

루 속에 있는 것과 같아 지척을 분간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마주보고 앉았어도 다만 말소리만 들릴 뿐 그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고 한다. 내가 (음력) 9월에 닳을 내리고 정월에 출항하였으니, 바로 이 가을 겨울이 하늘이 개는 매인데 그 사이 5개월 간 해에 닳과 빗을 볼 수 있었던 것은 볼까 수 십일이다. 이 밖에는 항상 흐리고 비가 오거나 눈이 내렸고 바람이 불지 않은 날이 없었다. 섬사람들은 봄시 가난하고 옷이 없는 자가 많다. 망석(網席)을 짚이 만든 도롱이를 입고 겨울 추위를 막는다. 대개 그 땅이 북쪽 본토에 비해서 대단히 따뜻하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죄를 짓고 들어가서 옷 없이 벌거벗은 자도 역시 풍속에 따라 추위를 견디는 것인데 이는 살기가 어려워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또한 백성은 곱추병과 상처와 헌데가 온몸에 나 있는 자가 많은데 이는 반드시 풍토가 나쁘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충암(沖庵) 김정(金淨, 1486~1521)의 『충암록(沖庵錄)』에 따르면, 이 읍의 풍토는 유별나고 모든 일이 다르다. 문득문득 감탄하고 놀라게 된다. 겨울은 따뜻하고 여름은 시원한데, 변화하거나 어긋나서 일정치가 않다. 기후는 따뜻한 것 같은데 옷 입은 사람은 매우 불편하다. 의식(衣食)을 절도있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병에 걸리기 쉽다. 더군다나 구름과 안개가 항상 음침하고 찌고 습하고 끓는 듯하고 울적하다. 땅에는 벌레들이 많은데 파리와 모기가 더욱 심하다. 지네와 개미와 지렁이 등 모든 굼실거리는 것들이 모두 겨울나도 죽지 않으니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이다.²⁷⁾

라고 하고 있다. 한편 정동계(鄭桐溪 1569~1641, 호 정은[鄭蘊])는 「대정위리기(大靜圍籬記)」에 말하기를

한 지역민(土人)에게 다음과 같이 들었다. “제주도(瀛州)는 둘러가며 전역이 바다 가운데 있는 어려운 섬이다. 그런데 이 (대정)현은 바닷가에 더욱 가까워 지형이 낮아 풍토병의 독한 기운이 (제주)삼읍 중에서 가장 심하다. 봄 여름이 바뀔 때부터 가을 8월초에 이르기까지 장마가 들면 계속 축축하

27) 김상헌(金尙憲) 저, 김희동 역, 『남사록(南槎錄)』(영가문화사, 1992), pp.53-56 참조

여 개지 않아 눈병이 발생하고 때도 없이 지독한 안개가 침침하게 막아 지척을 가리지 못한다. 사람과 물건들이 이때가 되면 기둥 서까래와 창벽에 물방울이 흐르는 게 샘처럼 하여 옷과 갓이며 상과 돛자리가 번지르하게 습기가 져서 땀물과 같다. 이리므로 비록 옷, 재물, 곡물이 있다 해도 여름이 지나면 썩어버려 끝내는 못쓰게 돼버리고 만다. 문지도리 쇠에 이르기까지 몇 년이 지나면 모두 삭아 썩는다. 하물며 피와 살이 있는 신체에서야 ... 우리가 여기서 성장하여 습관과 성격이 이뤄지지만 내지(內地)의 조관(朝官)이야 어찌 견딜 곳이겠는가.”

가을 기운이 끝나가고 북풍이 일어나려고 하면 장려(瘴癘)라는 풍토병이 조금 개고 양기(陽氣)가 드러나는데 정말 요즘과 같다. 그런데 겨울에 간혹 춥지 않고 여름에 간혹 덥지를 않아 기후가 서로 어겨 추위와 더위가 거꾸로 놓인다. 입는 것과 먹는 것이 조절하기 어려워 질병이 일어나기 쉽다.

뱀, 지네, 땅강아지, 지렁이 등 꿈틀거리는 생물들이 모두 겨울을 지나도 죽지를 않는다. 이는 풀과 나무, 무우, 부추, 마늘, 상치 등 모든 씨뿌려 심는 종류는 비록 깊은 겨울에도 여러 나물을 밭에서 구해다 쓸 수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²⁸⁾

고 하였다. 물론 여기서 대정현은 제주도의 남서부 지역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묘사된 기후는 제주도 전체의 기후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처럼 제주도는 기후적으로 거의 일 년 내내 생물의 증식이 가능해서 식물 생육과 세균 번식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에는 겨울에도 들판에서 푸른 채소를 볼 수 있으며, 방역(防疫)이 제대로 되지 않던 시절엔 늘 미생물 증식으로 인한 질병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따라서 평소에는 어디를 손대도 세균감염으로 질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옛 제주인들은 그것을 신의 노여움 때문에 생긴 동티(動土)로 여겼던 것이다.

28) 이증(李增) 저, 김익수 역, 『남사일록(南槎日錄), 1681』(제주문화원, 2001), p.159-160 참조.

IV. 신구간의 기후적 특성

자연 속에 생명들이 지속될 수 있는 것은 계절이 순환하기 때문이다. 겨울과 봄 사이, 그리고 24절기의 마지막 절기인 대한과 첫 절기인 입춘 사이는 생명의 죽음(휴식)과 부활(소생)의 마디가 된다. 따라서 사계절이 뚜렷한 온대기후에서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기간, 특히 묵은 해의 마지막 절기인 대한과 새해의 첫 절기인 입춘 사이는 낡은 것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것을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1.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계절을 엄격하게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세간에서 통용되는 통상(通常)계절, 24절기를 기준으로 하는 절기(節氣)계절 등은 1년을 기계적으로 3개월씩 나누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평균기온을 기준으로 하는 기상(氣象)계절²⁹⁾, 즉 자연계절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그리고 24절기의 명칭 자체가 중국 주(周)나라 때 화북(華北)지방의 기후를 반영한 것이어서³⁰⁾ 절기계절은 우리나라의 기후와 잘 들어맞지

29) 김연옥은 기상계절, 즉 자연계절은 다음과 같이 나누고 있다. 김연옥, 『개정 기후학 개론』(정익사, 1999), p.73.

계절	일 평균기온	일 최저기온	일 최고기온
초겨울(初冬)·늦겨울(晩冬)	5℃이하	0℃이하	
한겨울(嚴冬)	0℃이하	-5℃이하	
초봄(早春)·늦가을(晩秋)	5℃~10℃	0℃이상	
봄(春)·가을(秋)	10℃~15℃	5℃이상	
늦봄(晩春)·초가을(初秋)	15℃~20℃	10℃이상	
초여름(初夏)·늦여름(晩夏)	20℃~25℃		25℃이상
한여름(盛夏)	25℃이상		30℃이상

는 않는다. 그리고 기온을 기준으로 하는 기상계절(이하 자연계절)은 위도와 고도와 해안에서의 거리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난다. 따라서 비교적 면적이 작은 우리나라의 경우도 제주도의 해양성 기후에서부터 북부지방의 대륙성 기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후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동일한 시기라 해서 동일한 자연계절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① 통상적 기준에 따르면 봄은 3월, 여름은 6월, 가을은 9월, 겨울은 12월에 시작하고, ② 절기상으로 봄은 입춘(2/4), 여름은 입하(5/6), 가을은 입추(8/8), 겨울은 입동(11/7)에 시작하고, ③ 음력으로는 봄은 정월, 여름은 사월, 가을은 칠월, 겨울은 시월에 시작한다. 하지만 ④ 기상학적으로는 지역마다 사계절이 다를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지난 30년(1971~2000)간의 기상통계와 기상학적 계절 기준을 놓고 볼 때, 서울의 봄은 3월 13일, 여름은 6월 4일, 가을은 9월 20일, 겨울은 11월 21일에 시작되며, 제주의 봄은 2월 4일, 여름은 6월 3일, 가을은 10월 4일에 시작되는데, 겨울은 단 8일(1/27~2/3)에 불과하다.

서울을 기준으로 볼 때 부활과 소생의 계절인 봄은 절기상의 봄(입춘, 2/4), 음력상의 봄(설날, 1/22~2/20), 통상적인 봄(3/1), 기상학적 봄(평균 기온 5℃이상, 3/13) 등의 순으로 찾아온다. 그리고 음력을 사용하던 농경사회에서는 주로 입춘을 봄의 시작으로 삼았기 때문에, 예로부터 “봄은 왔지만 봄 같지 않다(春來不似春).”는 말이 상용어가 된 것도 당연하다 할 것이다.

30) 한국천문대, 『만세력』(명문당, 2004), p.13.

표1. 여러 기준으로 본 사계절

일(양력)	1	2	3	4	5	6	7	8	9	10	11	12
기준												
통상 사계	冬		春			夏			秋		冬	
절기 사계	冬	春			夏			秋		冬		
음력 사계	冬	春			夏			秋		冬		
기상 사계	서울	冬		春	夏			秋	冬			
계주	秋	冬	春			夏			秋			

2. 묵은 철과 새 철의 과도기로서 신구간

신구간이 '대한 후 5일 입춘 전 2일'이라는 사실은 신구간이 24절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달의 변화를 기준으로 한 태음력으로는 계절의 변화를 읽을 수 없다. 따라서 농경사회에서는 태양년과 삭망월을 조합하여 만든 태음태양력이 필요했다.³¹⁾ 그리고 24절기가 태음태양력 속에 들어 있는 태양력의 성분이라면,³²⁾ 설은 태음력의 성분이다. 따라서 둘 다 태음태양력(이하 '음력')의 요소라고 한다면 태양력에 기초를 둔 24절기의 시작인 입춘과 음력에 기초를 둔 설은 어느 정도 상관관계는 있어야 한다.

20세기(1901~2000) 동안에 태양력(이하 '양력')을 기준으로 설날을 보면, 가장 빠른 경우가 1월 22일이고 가장 늦은 경우가 2월 20일로서 약 1개월의 편차가 있다. 대체로 입춘 전후 15일 사이에 음력 정월이 시작

31) 박성래, 『다시 보는 민족과학이야기』(두산동아, 2003), p.144, 나카야마 시게루 저, 김향 역, 『하늘의 과학사』(가람기획, 2001), p.95 참조

32) 박성래, 위의 책, p.227.

되는데, 입춘이 설보다 앞서면 계절이 빠르다 할 것이고, 입춘이 설보다 늦으면 계절이 늦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음력을 기준으로 할 때 입춘은 설달에 들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윤달이 끼어 1년이 383일이 되는 해에는 정월과 설달에 거듭 드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양력을 기준으로 한다면, 입춘은 늘 2월 4일(또는 5일)로 고정되어 있다.

따라서 19~20세기까지 음력을 정부의 공식달력으로 채택했던 중국, 한국, 일본 등의 33) 농경사회에서는 계절의 변화를 읽기 위해서는 태양력의 요소인 24절기가 필수였다. 그리고 24절기는 수치[黃經]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을 개념으로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농부들은 24절기의 명칭만 들어도 농사와 관련된 기상정보를 대략 읽어낼 수 있다. 24절기는 중국문화권의 농경사회에서 음력을 보전해주는 농사달력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24절기는 중국 협서성의 향토력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34) 그 명칭 또한 중국의 화북지방의 기후를 중심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는 정확하게 들어맞지 않는다. 그리고 자연계절은 위도와 대륙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는 시기는 지역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대체로 우리나라의 흑서기(7월 말경)와 흑한기(1월 말경)는 일치하는 편이다.

한편, 신구간(1월 25일~2월 2일)은 우리나라 전역이 1년 중 가장 추운 시기인데, 신구간을 전후한 절기들의 평균기온을 보면 표2와 같다.35)

33) 나카야마 시게루 저, 김향 역, 『하늘의 과학사』(가람기획, 2001), pp.91-95 참조

34) 문승의, 『기상환경의 이해』(지구문화사, 1987), p.64 참조

35) 『한국기후표(1971~2000)』(기상청, 2001) 참조

표2. 신구간 전후 절기의 일평균기온 (단위 °C)

절기 \ 지역	서울	완도	제주
소한 (1/6, 7)	-1.5	4.0	6.8
대한 (1/20, 21)	3.2	1.9	5.1
신구간 (1/25~2/2)	-3.2	2.0	4.7
입춘 (2/4, 5)	-1.6	2.7	5.3
우수 (2/19, 20)	0.7	4.4	6.3
경칩 (3/5, 6)	3.1	6.3	8.2
춘분 (3/21, 22)	6.7	8.2	9.6

세간에는 소한이 대한보다 더 추운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를테면 '대한이 소한의 집에 놀러갔다가 일어 죽었다', '소한 얼음 대한에 녹는다', '춥지 않은 소한 없고 포근하지 않은 대한 없다'라는 속담이 그를 말해준다. 그러나 지난 50년간(1951~2000)의 기상자료를 놓고 볼 때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 속신과는 달리 대한이 소한보다 더 춥고, 그 추위는 신구간까지 이어진다.

그리고 신구간은 제주도의 기후적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기간이다. 제주도에서의 신구간은 대한보다 더 추워서 1년 중 일평균기온이 5°C 미만으로 내려가는 유일한 기간으로 일평균기온이 4.7°C에 이르며, 5% 내외의 찬바람까지 불어 체감온도는 1~2°C로 내려가서 매서운 추위를 느끼게 한다.

다른 지역과는 달리 제주도에서는 신구간이 끝나고 입춘이 되면, 다시 일평균기온이 5°C를 넘어 생명의 활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한다. 따라서 '입춘(立春)'이 문자 그대로 봄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입춘에 (평균기온이 5°C 이상이 되어) 자연계절의 봄이 시작될 수 있는 곳은 우리나라에서 제주도가 유일하다. 하여 제주도에서는 예로부터 입춘을 '새 철드는

날'로 불러왔다. 사실 제주도에는 기상학적으로 볼 때 겨울은 없지만,³⁶⁾ 신구간은 제주도에서 묵은 철이 끝나고 새 철로 넘어가는 길목인 셈이다.

대한 후 5일부터 입춘 전 3일까지를 '절기상 신구간'이라 하고, 자연계절의 겨울(5℃ 미만)에서 봄(5℃ 이상)으로 넘어가는 1주일 내외의 과도기를 '자연계절의 신구간'이라 한다면, 본토에서는 절기상 신구간과 자연계절의 신구간은 차이가 난다. 이를 테면 서울에서 절기상 신구간인 1월말~2월초에는 자연계절에서 보면 한겨울이고, 자연계절의 신구간이 되려면 3월 10일경이아야 한다. 그리고 지리적, 기후적으로 제주도와 가장 가까운 완도의 경우도 자연계절의 신구간이 되려면 2월 20일쯤이 되어야 한다.

반면에 제주도는 우리나라에서 절기상 신구간과 자연계절의 신구간이 일치하는 유일한 곳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제주도에서는 대한 후 5일과 입춘 전 3일 사이가 자연계절상으로도 겨울(묵은 철)에서 봄(새 철)으로 넘어가는 과도기가 되는 셈이다.

V. 맺음말

자연에서 생명이 지속될 수 있는 것은 계절이 순환하기 때문이다. 계절은 부활기에서 활동기를 거쳐 휴지기로 나아가고 다시 부활기로 이어진다. 따라서 휴지기에서 부활기로 바뀌는 시점은 생명의 지속이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이른바 신구간은 묵은 철을 정리하고 새 철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신구간이 하나의 세시풍속으로까지 진승되려면 관념적으로뿐만 아니

36) 『한국기후변람』(중앙기상대, 1985), p.45 및 p.373.

라 실질적으로도 묵은 철을 마무리하고 새 철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즉 절기상의 신구간(대한 후 5일부터 입춘 전 3일까지)과 자연계 절상의 신구간(일평균기온이 5℃ 이상으로 상승하기 직전 시기)이 일치해야 한다. 따라서 절기상으로는 신구간이지만, 입춘 자체가 자연계절의 봄의 시작이 아니라면 그 기간을 묵은 철을 정리하고 새 철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기엔 부적절하다.

『천기대요』와 『산림경제』의 ‘세관교승’조에서는 “대한 후 5일부터 입춘 전 2일 사이를 신구세관이 교승하는 때(大寒後五日立春前二日 乃新舊歲官交承之際)”로 규정하여 이 시기를 묵은 철을 정리하고 새 철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상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두 책이 전국적으로 널리 읽혔는데도 본토에는 신구간이라는 개념조차 없는 이유는, 신구간이 끝나 절기상으로는 입춘이 되어도 여전히 기상학적으로는 한겨울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서울에서는 대한 후 5일부터 입춘 전 2일 사이가 엄동설한이어서 묵은 철을 정리하고 새 철을 준비하는 기간으로는 부적절하며, 이 시기에 이사를 하거나 집을 수리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반면에 제주도에서는 신구간이 끝나 절기상 입춘이 되면 기상학적 봄이 시작될 수 있었기 때문에, 제주인들은 ‘세관교승’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신구간 풍속으로 정착시킬 수 있던 것이다.

이처럼 신구간 풍속이 제주도에만 (남아)있었던 데는 단순히 무속이나 미신으로 돌려버릴 수는 없는 기후 환경적인 요인들이 있다. 제주도는 아열대성 기후로 비가 많고, 화산회토로 이뤄져서 조금만 가물어도 가뭄을 겪고, 태풍의 길목이어서 바람 피해가 심했다. 그리고 고온다습한 제주의 기후는 1년 내내 세균의 번식이 가능해서 제주인들은 늘 질병의 위협을 안고 살아야 했다. 옛 제주인들은 자연재해와 질병 등을 인간의 의지로는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들로 여기면서 무속 신앙

에 의지하면서 살아야 했기에, 제주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무속적 성향이 높았다.

모든 것에 신령이 깃들어 있고, 길흉화복이 신의 조화 때문이라고 믿던 시절엔 어떤 일을 해도 탈이 없다는 것은 자연스레 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속신(俗信)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신구간에는 구세관(舊歲官)과 신세관(新歲官)이 교체되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서 지상에는 신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해가 없다는 '세관교승'은 일 년 내내 신에게 구속을 받으며 살아왔던 제주인들에게 복음(福音)과도 같았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언제나 신이 해코지해서 동티가 날까봐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없었던 제주인들에게 '신구간 동안만이라도 신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세관교승' 이야기는 큰 축복이었던 것이다. 무속 신앙이 강했던 제주인들에게 신구간은 신의 간섭으로부터 해방된 유일한 기간이었다. 다시 말해서 신구간은 신이 두려워 못 했던 일들을 마음놓고 할 수 있는 자유의 기간이요, 일탈의 기간이었다.

그리고 제주도의 독특한 기후 때문에 평소에 하면 뒤탈이 있던 일들도 신구간에 하면 뒤탈이 없더라는 것이 실증적으로 확인될 수 있었다. 신구간은 제주도에서 일평균기온이 5℃ 이하로 내려가는 거의 유일한 기간이다. 이것은 겨울이 없는 따뜻한 아열대성 기후 속하는 제주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5℃ 이하에서는 대부분의 미생물 증식이 중단되어 세균번식이 위축되기 때문에, 방역(防疫)이 허술하던 시절에 위생상에 문제가 되어 못했던 일, 즉 변소를 개축하거나 집을 수리해도 별 탈이 없었다. 이처럼 고온다습한 기후로 늘 세균 감염에 시달려야 했던 제주인들에게 신구간은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기간이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평균기온이 5℃ 미만인 신구간은 식물의 성장이 정지

되는 제주도의 농한기가 되는 셈이다. 따라서 신구간은 제주도의 기후를 놓고 볼 때 농사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기이지만, 곧바로 다시 농사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그동안 비워뒀던 집안일을 마빠 마무리해야 하는 시기였다. 척박한 자연환경을 이겨내기 위해서 제주인들은 식물 성장이 가능한 시기에는 농사에 전념해야 했고, 집수리, 번소개축, 이사, 이장(移葬) 등 농사 외적인 일은 농한기인 신구간을 이용해야 했다. 이처럼 입춘에 접어들면 곧바로 농사에 전념해야 하는 제주도의 기후는 신구간은 집안일을 하기에 안성맞춤의 시기였다. 다시 말해서 노동력을 생업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했던 농경사회에서 신구간 풍속은 합리적일 수가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제주도는 기후 환경적 측면에서 볼 때 “대한 후 5일부터 입춘 전 2일 사이가 신세(新歲) 구세(舊歲)의 관신(官神)이 교승하는 때이므로, … 집을 짓고 장사를 지내도 불리함이 없다.”는 <세관교승>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묵은 철을 정리하고 새 철을 준비하는 신구간 풍속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인 셈이다. 그리고 신구간 풍속이 제주도의 생활 민속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제주인들의 전통적인 무속적 성향, 그로부터 한시적으로나마 일탈을 가능하게 해준 <세관교승>의 유입, 그리고 기후 환경적인 실증적 효과 등이 어우러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신구간, 세관교승, 세시풍속, 24절기, 무속신앙, 기후

참고문헌

- 고찬화 편저, 『제주의 전설과 민요』, 디딤돌, 2004.
- 김혁제 교주, 『改正增補 天機大要』 卷之下, 명문당, 2000.
- 김상헌 저, 김희동 역, 『南槎錄』, 가문하사, 1992.
- 김성원 편, 신편 『한국의 세시풍속』, 명문당, 1994.
- 김연옥, 『개정 기후학개론』, 정익사, 1999.
- 김인호, 『한국 제주 역사·문화 뿌리학』상, 우용출판사, 1997.
- 나카야마 시게루 저, 김향 역, 『하늘의 과학사』, 가람기획, 2001.
- 담수계, 『증보 탐라지, 1954』, 제주문화원, 2004.
- 대한역법연구소 편, 原本 影印版 『新增參贊秘傳 天機大要』, 대지문화사, 1981.
- 문승의, 『기상환경의 이해』, 지구문화사, 1987.
- 박성래, 『다시 보는 민족과학 이야기』, 두산동아, 2003.
- 윤용택, 『제주도 신구간 풍속의 유래에 대한 고찰』, 『탐라문화』 28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6.
- 이원진 저, 김찬흠 외 역, 『탐라지, 17C』, 푸른역사, 2002.
- 이증(李增) 저, 김익수 역, 『南槎日錄, 1681』, 제주문화원, 2001.
- 이창희, 최순권 역주, 『조선대세시기 I』(조선전기문집편), 국립속박물관, 2004.
- 임동권, 『한국세시풍속연구』, 집문당, 1989.
- 장정룡, 『한중 세시풍속 및 가요연구』, 집문당, 1988.
- 장주근, 『제주도 무속문화의 지역성에 대하여』, 『제주도』 14호, 제주도, 1963.
- _____, 『한국의 세시풍속』, 형설출판사, 1989.
- 제주도, 『제주도지』 하, 제주도, 1982.
- 조성윤, 이상철, 허순애 공저, 『제주지역 민간신앙의 구조와 변용』, 백산서당, 2003.
- 신상기, 『新舊間과 民俗信仰』, 『국이국분학』 31·35 압병호, 국이국분학회, 1967.
- _____, 『제주도 금기어 연구사건』, 제주민속연구소, 1992.
- _____, 『제주도민속』, 제주민속연구소, 1997.
- 한국천문대 편, 『만세력』, 명문당, 2004.

- 현용준, 『濟州島 巫神性格과 神統』, 『제주도』 16호, 제주도, 1963.
- _____, 『제주도 무속과 그 주변』, 집문당, 2002.
- 홍만선 지, 민족문화추진회 역, 『국어 산림경제』 I, II, 민족문화문고간행회, 1986.
- _____, 『山林經濟』(한국학기본총서 제8집 吳漢根 소장본 영인본), 경인문화사, 1973.
- 홍석모, 『동국세시기』-강무학, 『한국세시풍속기』, 집문당, 1990.
- 제주신보, 제주신문, 제주일보, 한라일보, 제민일보 등 제주도내 신문 (1953. 1~2005. 2).
- 『서울민속대관』(풍수·관습·종교편), 서울특별시, 1996.
- 『세시풍속』(경상남도편), 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 『제주도 세시풍속』, 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 『한국기후편람』, 중앙기상대, 1985.
- 『한국기후표(1971~2000)』, 기상청, 2001.
- 『한국민속대관』,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1995.
-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경상남도편),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2.
-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제주도편),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7.
-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조선전기문집편), 국립속박물관, 2004.

Abstract

A Climatological Comprehension on Custom of
Singugan at Jeju Island

Yoon, Yong-taek*

Jeju has a unique seasonal custom of *Singugan* (新舊間, literally means 'between new and old') that cannot be found in the mainland of Korea. *Singugan* is a period of eight days between the fifth day after *Daehan* (大寒, the last of the 24 seasonal divisions of the year, around January 20) and two days before *Ipchun* (立春, the first of the 24 seasonal divisions of the year, around February 4). This period (around January 25 to around February 1) is thought to be the time gods are absent on the earth because they finished their duties for the year so as to ascend to Heaven to hear from the *Okhwangsanje* (玉皇上帝, the Lord of Heaven) their new year's missions. People, therefore, can repair their house or fence and move during the period without any harms because gods don't meddle in human affairs in *Singugan*.

This Myth appears in *Chungidaeyo* (天機大要) and *Sanlimkyongje* (山林經濟) which had been widely read at *Joson* dynasty (1392 ~ 1910). But the custom of *Singugan* has not found in the mainland of Korea. Only Jeju residents repair their house or *Tongsi* (Pig-latrine) and move in *Singugan*. It is not well explained that the custom of *Singugan* has been performed only at *Jeju* only on the basis that Jeju residents have widely believed shamanism. Shamanism has been believed in other regions as well.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Philosophy,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Jeju*, unlike in other regions, plants are flourished and germs are propagated all the year round with the warm and wet climate of *Jeju*. Only in *Singugan*, the plants shrink from flourishing and most germs shrink from propagating at *Jeju*. *Singugan*, therefore, is the time it is free from diseases and the farmers can have their leisure time at *Jeju*. And *Singugan* is the term that completes the old seasons and prepares for the new season. For that reasons, *Jeju* islanders are busy repairing their house or pig-latrines and moving in *Singugan*.

Key Words

Singugan, seasonal custom, 24 seasonal divisions, shamanism, climate

교신: 윤용택 690-756 제주시 제주대학로 66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철학과
(E-mail: sumsaram@cheju.ac.kr 전화: 010-9977-2178)

최초 투고일 2006. 5. 21

최종 접수일 2006. 6. 27